

기획재정부			
산업통상자원부			
국토교통부			
배포일시		2016. 5. 6(금) 총 2매(본문 2)	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	국제 경제과	• 과장 김동준, 사무관 심지혜 • ☎ (044) 215-7630, 7636
	산업통상자원부	중동 아프리카 통상과	• 과장 최진혁, 사무관 박신렬 • ☎ (044) 203-5720, 5724
	국토교통부	해외건설 지원과	• 과장 박병석, 사무관 공경화 • ☎ (044) 201-3526, 3529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

- 이란 언론에서 한국이 250억 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것은 우리 수은, 무보 등이 이란 진출 우리기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해 마련한 250억불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

□ 한-이란 정상회담 계기로 추진되는 371억불 사업 중 많은 사업들은 동 금융 패키지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므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

- 이란측의 250억불과 우리측의 371억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며, 양국 정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서로 “책뎀” 이라는데 어느 나라 말이 맞나... 보도 관련

< 보도내용 (경향신문, 5.5) >

- 한-이란 정상회담 경제성과를 놓고, 양국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음
 - 청와대는 국내기업이 371억불 규모의 인프라 재건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홍보
 - 이란에선 ‘한국, 이란 인프라 구축 사업에 250억달러(29조원) 투자’ 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

□ 한-이란 정상회담 경제성과를 놓고, 한국과 이란 정부가 상반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

- 한-이란 정상회담 계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언급된 371억불은 우리 기업이 이란 발주처와 협의 중인 사업으로, 이번 순방 시 MOU, HOA, 가계약 등이 체결되어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사업의 규모를 합산한 금액입니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심지혜 사무관(☎044-215-7636),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 박신렬 사무관(☎ 044-203-5724),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공경화 사무관(☎ 044-201-352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